

##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 행태 및 주관적 구강상태와 행복지수 관련성

조미숙<sup>1</sup>, 이진아<sup>2</sup>, 임수빈<sup>3</sup>, 권현숙<sup>4</sup>, 천세희<sup>4</sup>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sup>1</sup>, 창원 파티마병원<sup>2</sup>, 창원스타치과<sup>3</sup>, 마산대학교 치위생과<sup>4</sup>

### An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the happiness index among some university student

Mi Suk Cho<sup>1</sup>, Su Bhin Im<sup>2</sup>, Jin Ah Lee<sup>3</sup>, Hyeon Sook Kwun<sup>4</sup>, Sae Hee Cheon<sup>4</sup> †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sup>2</sup>Changwon Fatima Hospital Changwon

<sup>3</sup>Star Dental Clinic Changwon

<sup>4</sup>Dep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ABSTRACT** This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happiness index among some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Gyeongsangnam-do, from July 1 to August 5. The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by a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e survey was composed of 7 quest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11 questions on their oral health care behavior, 9 questions on their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3 questions on their happiness index. SPSS 20.0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test were use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significance level set at 0.05.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a positive happiness index ( $r=0.197$ ,  $p=0.000$ ),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ive oral health index and a negative happiness index ( $r=-0.235$ ,  $p=0.000$ ).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is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care behavior,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the happiness index in some university studen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programs for this population.

**Key words** : Happiness index, Oral health behaviors, Oral health status, University students

† Correspondence to Cheon S-H,  
Tel: +82-55-230-0143  
Fax: +82-055-230-1444  
E-mail: cheon@masan.ac.kr

Received Feb 13, 2018

Revised Feb 20, 2018

Accepted Mar 13, 2018

###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한 요즘 사회적 경제적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행복한 삶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및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

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노인의 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고였다[1].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이웃 나라 일본의 25년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부양의 부담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 본 논문은 2017년도 춘해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할 것이며 구강건강관리는 질병에 이환되게 되면 만성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한번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 하거나 지속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2].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5세 치주조직건강 자율이 2006년 62.7%보다 22%가량 줄어든 40.1%로 나타나 치주병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사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6년 35-44세 치주조직건강 자율이 28.2%로 청소년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3]. 구강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구강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개개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행동 양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강 보건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4].

구강관리 행태는 구강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로써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유사한 환경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유사한 구강관리 행태를 형성하게 된다[5]. 대학생은 연령적으로 대부분 청년기에 속하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학업 과정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비슷한 환경을 지닌 유사 집단으로 다른 인구집단과 구별되는 구강관리행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생의 구강관리행태 분석은 대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6]. 대학생들은 가까운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 가정을 이루게 될 사람들로 건강이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은 사회 주변 사람들과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7].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의 구강 건강은 대학교라는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8]. 대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 장소인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9].

행복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주관적인 안녕감과 상호관련성이 있어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이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람직한 경험으로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인지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10]. 대학생활에 있어 삶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상태, 주관적 구강상태 인식도를 파악하고, 행복지수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이 행복한 대학생활에 기여할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7월 1일~8월 5일까지 개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총 257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24부는 답변이 미흡하여 제외하고 총 233부를 이용하였다.

### 2. 연구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 구강관리 행태 11문항,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9문항, 행복지수는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는 행복의 인지적 요소(삶의 만족)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요소(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삶의 만족은 대학생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세 가지 측면(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대학생이 느끼는 행복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던 6개의 정서 어휘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고자 구성하였다[11].

### 3. 자료 분석 및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설문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관리 행태는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행복지수는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강 관리 행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Tukey로 분석하였으며, 구강관리행태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지수와의 관계는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 = 0.05$ 로 정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56.7%, 여자가 43.3%이며, 연령은 18~20세가 29.2%, 21~23세가 51.9%, 24~26세가 18.9%로 조사되었다. 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18.5%, 자연과학계열이 18.0%, 공학계열이 41.2%, 의학계열이 10.7%, 예체능계열이 10.7%, 기타 0.9%였으며, 주거형태는 자취 33.5%, 기숙사 32.2%, 본가 33.9%, 기타 4%였으며, 동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32.6%, 친구와 함께 42.1%, 혼자 생활 24.9%, 기타 4%로 나타났으며, 한 달 용돈은 1~10만원 9%, 11~20만원 9%, 21~30만원 10.3%, 30만원 이상이 88.0%였으며, 전신상태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 4%, 건강하지 못하다 11.6%, 건강하다 57.5%, 매우 건강하다 30.5%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32	56.7
	Female	101	43.3
Age	18~20	68	29.2
	21~23	121	51.9
	24~26	44	18.9
Department of Science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43	18.5
	Natural Science	42	18.0
	Engineering	96	41.2
	Medicine	25	10.7
	Arts and Physical Education	25	10.7
	Etc	2	0.9
Housing type	Trace	78	33.5
	Dormitory	75	32.2
	Home	79	33.9
	Cooking food for oneself	1	.4
Cohabitation type	With family	76	32.6
	With friends	98	42.1
	Living alone	58	24.9
	Etc	1	.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Allowance/ Month	≤100,000	2	.9
	110,000~200,000	2	.9
	210,000~300,000	24	10.3
	>300,000	205	88.0
Physical condition	Not at all healthy	1	.4
	Little Healthy	27	11.6
	healthy	134	57.5
	Very healthy	71	30.5
Total		233	100

#### 2. 연구 대상자의 구강관리 행태

연구 대상자의 구강관리 행태는 <Table 2>와 같다. 칫솔질 시기는 식전 18.1%, 식후 50.6%, 취침 전 29.5%, 기타 1.8%이었으며, 칫솔질 횟수는 2회 이하 21.5%, 3회 64.4%, 4회 이상 14.2%였으며, 칫솔질 방법은 회전법 22.4%, 위아래로 25.1%, 옆으로 35.7%, 둥글게 16.8%로 나타났으며, 혀솔질은 가끔 한다 11.6%, 매일한다 87.6%, 안한다 38.6%였으며, 칫솔질 교육 유무 예 38.6%, 아니오 61.4%였으며, 불소치약 사용 유무는 예 10.3%, 아니오 36.9%, 모름 52.8%로 조사되었다. 구강검진 유무는 예 18.9%, 아니오 81.1%였으며, 구강위생용품 사용 유무 예 21.9%, 아니오 78.1%였으며, 스케일링 유무 예 61.8%, 아니오 38.2%로 나타났으며, 스케일링 유무에서 예를 응답한 사람들 중 1년 이내 25.3%, 2년 이후 16.3%, 모름 20.2%로 나타났다. 흡연 유무 예 49.4%, 아니오 50.6%로 나타났으며, 흡연 유무에서 예를 응답한 사람들 중 반갑 이하 9.0%, 한갑 이하 22.3%, 한 갑 이상 18.0%로 나타났다. 음주 유무 한다 86.7%, 안한다 13.3%였으며, 음주 유무에서 예를 응답한 사람들 중 주1~3회 69.5%, 주3~5회 15.9%, 주5회 이상 11.3%였으며, 음주량은 반병이 6.4%, 한 병이하 30.0%, 1~2병 28.3%, 2~3병 20.6%, 4병 이상 1.3%로 나타났다.

<Table 2> Oral health behaviors of study subjects

Categories	Classification	n	%
Teeth brushing (N=447)	Before meal	81	18.1
	After meal	226	50.6
	Before sleeping	132	29.5
	etc	8	1.8

Categories	Classification	n	%
Frequency of teeth brushing	≤2 times	50	21,5
	3 times	150	64,4
	>4times	33	14,2
Method of teeth brushing (N=398)	Rolling	89	22,4
	UP and down	100	25,1
	Sideways	142	35,7
	Round	67	16,8
Tongue cleaning	Sometimes	27	11,6
	everyday	204	87,6
Teeth brushing instruction	No at all	2	0,9
	Yes	90	38,6
Fluorine toothpaste	No	143	61,4
	Yes	24	10,3
Dental checkup	No	86	36,9
	Don't know	123	52,8
	Yes	44	18,9
Oral health auxiliary	No	189	81,1
	Yes	51	21,9
Scaling	No	182	78,1
	Yes	144	61,8
Frequency of scaling/a year	No	89	38,2
	Every years	59	25,3
	2 years	38	16,3
Smoking	don't know	47	20,2
	Yes	115	49,4
A mount of smoking	No	118	50,6
	≤10	21	9,0
	10-20	52	22,3
Alcohol	>20	42	18,0
	Yes	202	86,7
Frequency of alcohol/a week	No	31	13,3
	1-3 times	162	69,5
	3-5times	37	15,9
A mount of alcohol	5 times	3	1,3
	0,5≥	15	6,4
	1≥	70	30,0
	1-2	66	28,3
	2-3	48	20,6
	≤4	3	1,3

### 3. 구강관리 행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행복지수

구강관리 행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지수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혀솔질, 스케일링 유무, 흡연 유무, 흡연량, 음주 유무, 음주빈도, 음주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행복지수에서는 칫솔질 횟수, 칫솔질

교육유무, 불소치약 사용유무, 구강검진 유무, 구강위생용품 사용유무, 스켈링 유무, 흡연 유무, 흡연량, 음주 유무, 음주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칫솔질 횟수에 따른 행복지수에서는 4회 이상의 항목에서 31.96점(F=15.819, P<0.001)이었으며, 혀솔질에 따른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에서는 매일한다는 항목에서 33.05점(F=8.902, P<0.001), 칫솔질 교육유무에 따른 행복지수는 30.92점(T=4.842, P<0.001), 불소치약 사용유무에 따른 행복지수는 31.50점(F=3.503, P=0.032), 구강검진에 따른 행복지수는 32.75점(T=6.072, P<0.001), 구강위생용품 사용유무에 따른 행복지수는 31.90점(T=4.994,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켈링 유무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3.71점(T=4.879, P<0.001), 행복지수에서는 29.91점(T=3.551, P<0.001), 흡연유무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는 비흡연자에서 33.26점(T=-2.243, P=0.026), 행복지수에서도 비흡연자항목에서 29.95점(T=-2.799, P=0.00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량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는 반 갑 이하 항목에서 34.00점(F=4.177, P=0.018), 행복지수에서는 반 갑 이하 32.71점(F=10.643,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 유무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서는 음주를 한다 항목에서 32.84점(T=2.146, P=0.033), 행복지수에서도 음주를 한다 항목에서 28.86점(T=-2.029, P=0.04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 빈도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는 주1~3회에서 33.18점(F=6.107, P=0.003), 음주량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서는 한 병 이하 34.10점(F=2.997, P=0.020), 행복지수에서는 반병 항목에서 33.00점(F=4.043, P=0.00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happiness index according to oral health behaviors

Variables	Classification	n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Happiness index
Frequency of teeth brushing	≤2 times	50	31,80±4,69	26,46±3,27 <sup>a</sup>
	3 times	150	32,78±4,44	29,36±4,68 <sup>b</sup>
	>4times	33	32,87±5,88	31,96±4,95 <sup>c</sup>
	F(p)		0,883(0,415)	15,819(<0,001)
Tongue cleaning	Sometimes	27	29,29±3,85	27,96±4,08
	everyday	204	33,05±4,62	29,28±4,82
	No at all	2	28,50±7,77	26,50±0,70
	F(p)		8,902(<0,001)	1,241(0,291)

Variables	Classification	n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Happiness index
Teeth brushing instruction	Yes	90	32.97±5.01	30.92±4.91
	No	143	32.33±4.52	27.97±4.27
	T(P)		1,011(0.313)	4,842(<0.001)
Fluorine toothpaste	Yes	24	32.00±4.76	31.50±5.84
	No	86	33.38±4.89	28.73±3.94
	Don't know	123	32.13±4.54	28.91±4.91
	F(p)		1,984(0.140)	3,503(0.032)
Dental checkup	Yes	44	33.75±5.57	32.75±4.75
	No	189	32.31±4.47	28.26±4.33
	T(p)		1,829(0.069)	6,072(<0.001)
Oral health auxiliary	Yes	51	32.98±5.01	31.90±5.00
	No	182	32.47±4.64	28.32±4.36
	T(p)		0,678(0.498)	4,994(<0.001)
Scaling	Yes	144	33.71±4.32	29.91±4.99
	No	89	30.75±4.77	27.80±3.99
	T(p)		4,879(<0.001)	3,551(<0.001)
Smoking	Yes	115	31.88±4.57	28.24±4.95
	No	118	33.26±4.77	29.95±4.37
	T(p)		-2,244(0.026)	-2,799(0.006)
A mount of smoking (N=115)	≤10	21	34.00±4.11 <sup>b</sup>	32.71±5.21 <sup>c</sup>
	10-20	52	32.07±4.46 <sup>ab</sup>	28.55±5.17 <sup>b</sup>
	>20	42	30.59±4.59 <sup>a</sup>	26.11±3.29 <sup>a</sup>
	F(p)		4,177(0.018)	10,643(<0.001)
Alcohol	Yes	202	32.84±4.73	28.86±4.57
	No	31	30.90±4.30	30.70±5.53
	T(p)		2,146(0.033)	-2,029(0.044)
Frequency of alcohol (N=202)	1-3 times	162	33.18±4.68 <sup>b</sup>	29.21±4.49
	3-5times	37	32.02±4.41 <sup>b</sup>	27.59±4.82
	5 times	3	24.33±2.30 <sup>a</sup>	25.66±1.52
	F(p)		6,107(0.003)	2,682(0.071)
A mount of alcohol (N=202)	0.5≥	15	33.73±7.39 <sup>c</sup>	33.00±3.70 <sup>b</sup>
	1≥	70	34.10±4.51 <sup>c</sup>	28.88±3.83 <sup>a</sup>
	1-2	66	32.36±4.29 <sup>ab</sup>	28.30±5.08 <sup>a</sup>
	2-3	48	31.64±4.26 <sup>ab</sup>	28.16±4.33 <sup>a</sup>
	≤4	3	28.66±3.78 <sup>a</sup>	31.33±7.50 <sup>ab</sup>
	F(p)		2,997(0.020)	4,043(0.004)

\*p<0.001

#### 4.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행복지수의 관련성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행복지수와 관련성은 <Table 4>와 같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행복지수간의 긍

정감정합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0.197, p=0.000),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행복지수간의 부정감정합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35, p=0.000). 따라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긍정감정 또한 높다고 말할 수 있고,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부정감정 또한 낮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4> Association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happiness index

Classification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Happiness index		
		Satisfaction of life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1			
Happiness Index	Satisfaction of life	0,098	1	
	Positive emotion	0,197**	0,607**	1
	Negative emotion	-0,235**	-0,126	-0,082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 IV. 고찰

대학생활의 구강보건은 구강건강을 증진 및 유지 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연구를 하였다. 행복의 미로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또는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나, '일상생활에서 웃거나 기쁠 때, 무엇을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추상적인 감정'이므로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한다. 또한 행복감은 스스로 선택한 준거에 따른 자신의 삶의 질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로 정신건강 병리현상의 완화 및 제거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재정, 가정, 친구 등의 요인들이 제거되고 있다고 한다[12].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건강상태와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은 이미 입증되었고 대학생활의 구강건강관리가 대학생들은 생애주기에서 성인기의 시작단계로 인생의 가치관 확립과 취업 및 자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구강건강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관리하기에도 중요한 시기라

고 하겠다[12][13]. 그러나 윤 등[2]은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구강보건지식과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기적 구강검진과 더불어서 개인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정확한 지식의 함양을 통한 올바른 행동변화를 통하여, 구강건강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구강보건관련 지식과 인식도 등은 구강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등[14]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동거인 유무, 교육수준, 월 평균용돈, OHIP-14( $p < 0.05$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행복지수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well-being”이 이슈가 되어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인지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15]. 그러므로 바람직한 구강기능은 삶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구강건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경상남도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기에 전국 대학생을 대표할 수 없으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 있다. 또한 고려하지 못한 다른 혼란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독립변수를 고려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과 주관적 행복지수의 다양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Lee HO, Park JY: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and Happiness Index in Elderly People.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6(6):415-423, 2016.
2. Yoon HS: Relationship of Oral Health Behavior to Happiness Indexes among Industri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1):313-321, 2013.
3. Choi HS, Hwang SH, An SY, et al.: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Behavior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4):533-546, 2011.
4. Jung YY: A Study of the Relation of Stress to Oral Health-Related of Life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of Chungnam.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4(2):158-166, 2014.
5. Kim SJ, Park IS: A Study of Oral Health Recognition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15(2):89-100, 2013.
6. Lee SJ, Jang JH: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 of Periodontal Diseases and Dental Health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4):817-825, 2012.
7. Park SH: Comparison o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Jeollabuk-do Korea. Master' thesis, Wonkwang University, Wonkwang, 2010.
8. Do JI: The Effect Oral Health Education has on The Knowledge and Behavior Concerning Oral Health. Master'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2013.
9. Yoon SU, Oh NR, Kim JS: Oral health conditions of college studen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329-337, 2015.
10. Seo HS, Park KS: The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 of industrial workers at Choong-Nam province, South Korea. Journal Korean Academy Oral Health 27:641-653, 2003.
11. Suh, EM, Koo, J: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 96-114, 2011.
12. Campbell A: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31(2):117-124, 1976.

1. Lee HO, Park JY: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and Happiness Index in Elderly People. The

13. Yoon HS, Nam YY, Ryu HA et al: A Survey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Distri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107–115, 2013.
14. Park CB, Park SY, Lee MK, et al.: Investigation into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case of health–related majors and non–health related maj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3(1):41–49, 2015.
15. Joo EJ, Kown YC, Nam MH: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Work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Index.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1(2):212–222, 2015.